

근현대 남원의 삶 기록하다

‘남원다움관’ 개관... 다양한 콘텐츠 구성

남원시는 남원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시민들의 추억과 기억을 기록으로 보존하는 남원다움관(검열1길 14 일원)을 지난 4일 오후 2시 정식 개관했다.



남원시는 남원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시민들의 추억과 기억을 기록으로 보존하는 남원다움관(검열1길 14 일원)을 지난 4일 오후 2시 정식 개관했다.

상 2층의 규모로 근현대 남원의 삶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었고, 관람투원, 남원에촌 등 남원의 주요 관광지와 근접해 있어 연계관광이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남원시에서는 이번 개관을 위해 그동안 수집공모전, 구도심기록화조사 등으로 기록물을 수집하고 국비공모 사업을 통해 근현대자료를 바탕으로 구현한 체험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남원의 삶과 이야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들이 방치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수집하고 보존 가능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력해왔다.

이곳의 주요 시설은 ▲남원에 관해 전문지식을 휴식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전문서가 ‘남원포레스트’ ▲남원 근현대 생활사 전시 및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의 기억’ ▲각종 문헌과 행정기록물을 통해 행정변천사를 살펴보고 체험하는 ‘나도 공무원’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이 가능한 ‘창작발전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외부에는 휴식을 위한 공원과 어린이놀이 공간으로 꾸며놓아 전시와 체험, 휴식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남원다움관은 중요기록물과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다시 찾는 순창! 쉼-랜드 페스티벌

12일 전국서 100여명 초청 건강 프로그램 구성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이사장 황숙주)가 오는 12일을 시작으로 1박2일 동안 ‘다시 찾는 순창! 쉼-랜드 페스티벌’을 연다.

연구소는 정신적인 쉼, 바른 먹거리, 균형 잡힌 운동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순창군민은 물론 전국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현대산호중공업 임직원들 2500여명이 다녀간 후로 연말까지 교육 일정이 꽉차 있어서 신규 교육생들의 접수를 받기 곤란할 정도라는 것이 관계자 측의 전언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금까지 건강장수

연구소에서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 중 100여명을 선정해 순창에서 느꼈던 건강함과 추억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12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서울대학교 제3기 인생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로 이루어진 ‘U3A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어 장류와 장수의 고장인 순창에 걸맞게 대표 발효음식인 생정국장 만들기와 쿠킹 클래스를 통해 건강식단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

했다. 쿠킹클래스, 생정국장 만들기, 자제교정 요가 프로그램 등 바른 먹거리와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저녁식사는 순창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맛있는 순창 밥상 식사 후 저녁 시간에는 수많은 별빛이 가득한 가을 밤에 어울리는 작은 음악회를 준비해 참석자들의 감미로운 감성을 자극할 계획이다.

13일에는 건강장수연구소 주변 편백산책로를 걷는 노르딕워킹과 요가, 명상, 포토존 사진 추억 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타임캡슐에 건강과 행복한 가정의 기원을 담아 보는 시간을 마지막 으로 이번 페스티벌을 마무리 짓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인월면, 흥부마을 터울림 개최

남원시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제27회 흥부제의 사전 행사로 흥부마을인 인월면 성산마을에서 ‘흥부마을 터울림 행사’를 오는 7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우애, 나눔, 보은, 행운의 흥부정신을 계승하고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제로, 풍요와 행운을 기원하는 인월농악단의 터울림(농악공연)을 시작으로 고유제,

기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진명현 인월면장은 “인월면은 흥부의 출생지인 만큼 면민들이 다시 한 번 흥부정신을 상기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주민화합·협동의 장인 터울림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N 치즈축제 성황리 마무리

어린이 요리경연대회·왕 치즈 피자 만들기 등 인기

2019 임실 N 치즈축제가 임실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맛있는 치즈, 웃음꽃 피자’를 주제로 6일까지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에서 열린 축제는 먹거리와 볼거리, 치즈 체험 등 9개 테마에 84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3일 오후 개막식에서는 ‘미스트롯’ 송가인을 비롯해 밴, 동키즈, 전영록, 장민호 등 가수들이 흥겨운 공연을 펼쳤다.

전국 어린이 요리경연대회, 우유 먹은 메기 잡기, 치즈 팡팡(에어바운스 놀이랜드), 매직 및 버블쇼, 치즈 인형극, 키즈 콘서트, 잔디 썰매 타기 등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또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름 8m 대형 왕 치즈 피자 만들기는 기존의 1일 1회에서 2회로 추가됐다.

우유 드림 행복 드림 페어리드는 관광객들의 볼거리 확장을 위해 유럽풍 의상을 입은 치즈 요정과 외국인 무용단이 어우러진 이색 페어리드도 진행됐다.

관광객의 대열 참여를 유도한

다음 분수광장에서 관광객과 함께 우유를 마시는 퍼포먼스도 마련됐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의 행복한 순간을 포착해 시상하는 ‘임실 치즈 스마일 포토 컨테스트’도 열렸다. 이 기간 매일 우수작을 선정해 임실N치즈 홍보 인형과 임실N 치즈 선물세트가 증명됐다.

아울러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에 어린이와 가족들이 볼거리와 놀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힛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임실군은 축제장에 총 50억원(국비 20억원 포함)을 들여 내년부터 ‘지정환 신부 기념관’을 지을 계획이다.

이 기념관은 1967년 국내 최초로 임실에 치즈 공장을 세워 관련 산업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다가 올해 4월 선종한 지신부의 발자취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임실 임실군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난 임실N치즈축제는 작년보다 한층 더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다”고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아름다운 남원모습 드론 공모전

남원시는 아름다운 남원의 모습을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담은 영상과 사진을 찾기 위한 공모전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드론 공모전은 2019년 촬영·제작된 영상 및 사진으로, 영상은 30초 이상 1분 이내로 편집된 1920×1080 30FPS(Full HD)의 MP4 영상 파일을 규격으로 하고, 사진은 3000픽셀 이상의 JPG 파일을 규격이다.

공모 주제는 ‘하늘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남원을 찾아보자’이며, 세계적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가진 남원의 숲, 길, 산을 비롯해 남원에서 펼쳐지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상과 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 남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문화유산, 유적지, 관광지 등 다양한 남원의 모습을 드론을 통해 아름답게 담으면 된다.

제출은 남원시 드론영상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parkdi@korea.kr)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고 발표는 12월 11일 이뤄질 예정이다.

상금은 영상 부분 대상에 300만원, 사진 부분 대상에 100만원 등 총 1,430만원의 상금과 남원시장상 등 영상 10개 작품, 사진 15개 작품을 선정하며, 입상한 영상, 사진들은 향후 TV, 신문 등의 각종 언론매체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매체를 통해 남원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촌 관광해설사 양성 추진

남원시는 농촌관광객들의 품격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역사 문화, 자연경관·자원 등을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농촌관광해설사 양성에 나섰다.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10월 30일까지 남원시 농촌활력사업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해 11월부터 1개월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에 선정되어 ‘남원누리Go’ 농촌관광 표창을 등록한바 있으며, 3년간 3억8천만원을 투자해 당일프로그램, 1박2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왔다.

남원시는 그동안 농촌지역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잘거리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지난 9월 준공한 운동복 등 편의 농촌관광거점마을은 50명 숙박과 100여명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사매면 노봉마을은 매년 11월

초 소설 ‘흔들’의 주인공인 효원 아저씨 주제로 한 신형김축제와 구)서도역에서는 매년 봄·가을 음악회를 보려면 추어마을은 클래식음악회 등 주민 스스로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제회 농촌자원 사진공모전을 실시해 농촌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밖에 27개 마을별 농촌활력프로그램을 진행해 농촌에 활력 넘치고 다시 찾고 싶은 농촌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남원시 배세근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농촌관광해설사 교육은 자격취득이 아니고 시가 인정하는 농촌관광해설사로 농촌관광객들에게 농촌의 자원과 전통문화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농촌현장 활동가 양성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관광해설사 양성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쟁력 있는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화탄세월교 10톤 초과 차량 제한

순창군이 지난 1일부터 순창군 섬진강에 위치한 화탄세월교를 오가는 차량 중 총 무게 10톤 이상, 높이 3m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화탄세월교가 노후화 되어 세월교를 오가는 이동차량과 라이더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8월 화탄세월교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등급은 C등급을 받았고 교량의 총 통과하중은 24톤으로 분석했다.

이에 섬진강 종주 자전거길 라이더 및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오랜 기간의 공영년수 및 통과차량의 총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같이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군 측은 밝혔다.

안전등급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이에 군은 경찰관서 사전 협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유적교·화탄마을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지정했으며, 차량 통행제한 공고를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차량 통행 제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